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정확히 말해서 ‘죽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배란, 내가 죽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선포하는 하나의 의식(Ceremony)입니다. 인간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불러 내셨습니다. 그때 바로에게 가서 “사흘 길을 가서 우리가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러 간다.”라고 청을 합니다. 물론 그 청을 거절했기 때문에 바로는 10가지 재앙, 즉 장자가 죽는 대재앙을 받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40년간 광야생활을 하게 됩니다. 광야생활의 하이라이트(Highlight)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셨던 것일까요. ‘사흘 길’정도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40년간 그 백성들을 방황하게하고 가나안땅으로 직접 들여 보내지 않으신 이유는 430년간 노예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가르치시는 목적인, 노예근성을 뽑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일제강점기 때 36년간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4기 개강예배 설교

## 미디어의 **소명**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와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었드러질 것이라 너희중에서 이십 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민수기 10:26~30-



을 지배받으면서 노예적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이 우리 삶에 짜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대들은 굉장히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430년간 노예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은 어땠는지 짐작할 수 있겠지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끊임없이 노예근성을 뽑는 삶을 인도하시는데, 그 핵심이 이스라엘 백성의 진 한가운데에 회막(會幕)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한가운데에 회막을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나 회막을 중심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를 하시지만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회막을 견고 구름이 멈추는 곳에서 회막을 펴서 또 성막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언제나 진 한가운데에 회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한가운데 만드는 '상징성'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이 계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에 자리하신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우리 중심에 '내'가 자리 잡고 싶어서 교육 받았습시다. 열심히 돈을 벌고, 출세하고자 하는 목적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자 하는 삶이고, 내가 내 인생의 예배를 받는 위치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내가하는 일을 광고하고 알리고 싶고, 드러내고 싶은 모든 것들은 사실 '내'가 예배 받는 자리에 가고자 하는 본능과 욕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드러나는 것, 사람이 예배 받는 자리에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반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간음하고 사기 치는 것들은 죄의 증상이고, 죄의 뿌리는 '내'가 하나님처럼 대접받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서로 다투는 이유는 대접받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다못해 교회까지 시끄럽습니까? 누가 장로가 되고, 누가 장로에 탈락했다는 것 때문에 교회가 깨집니다. 심지어 담임목사와 부교역자들도 다툽니다. 담임목사와 장로들도 다툽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진정 주님의 교회라면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다투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조직과 마찬가지로 교회도 다투고 시끄럽습니다. 해외교포사회의 한인회라는 모임도 한인회 회장 선거 때

다 두 개, 세 개로 모임이 쪼개지고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세상은 이런 곳입니다.

미디어는 자신이 세상을 판단하고 주인이 되려합니다. 그렇다면 미디어는 다를까요? 미디어에 중사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의 주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왜 기자가 됩니까? 내가 마음대로 시시비비(是非)를 논하려고 되는 것입니다.

미디어란 무엇입니까? 본인이 판단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어는 오늘날 파워의 한 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미디어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개인 미디어가 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버락 오바마는 467만 팔로우(follow)를, 최근에는 레이디가가가 오바마를 제치고 트위터 쿤에 등극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지금은 한 사람의 영향력이 매체의 영향력을 앞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트위터 쓰는 사람은 160만 이상인데, 1,2,3순위에 드는 사람들은 한 미디어가 갖는 영향력 전체보다 커졌습니다. 현재는 이외수씨가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주하 아나운서의 트위터는 MBC가 갖는 영향력보다 더 커졌습니다. 독설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미디어보다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한명숙 씨가 근소한 차이로 떨어졌지만, 마지막으로 트위터로 동원된 인력이 30만이나 땀다고 합니다. 어쩌면 다음 선거는 트위터 선거가 될지도 모릅니다.

#### 미디어를 향한 사람들의 꿈

미디어를 향한 사람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내가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겠다는 겁니다. 내가 더 주도적인 입장에 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 내면에 있는 죄성이 가지지 않는다면 인간에게 주어진 칼자루는 사람을 해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또한 미디어의 확산은 더 심각한 사회병리(병폐)로 치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미디어라고 부르는 것들은 사실 '사람'이라고 하는 첫 번째 미디어의 확장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미디어들은 '사람'이라고 하는 1차 미디어가 자기 목소리를 크게 내기 위해 만든 확장기들입니다. 그래서 사람



## MEDIA ACADEMY



의 소리가 정확하지 않다면 그 확성기에서 울려나오는 잘못된 소리는 더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퍼져나가게 됩니다. 메아리를 만들고 공명을 만들어서 정확하지도 않은 정보나 메시지들이 세상을 얼마나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까.

### 기독교미디어의 중요성

그렇다면 기독교미디어의 출발은 무엇일까요? 사실은 미디어의 구원이라고 하는 큰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출발은 다시 개인이 구원받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구원받은 개인이 미디어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미디어의 환경은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미디어는 가치중립적입니다. 어떤 사람이 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독교미디어야말로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큰 텍스트는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12명의 리포트(Report)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열 명은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우리는 다 죽게 생겼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 다'라고 보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차지할 것'이라고 리포트 합니다. 같은 사안을 보고 왔지만 열 명과 두 명의 리포트는 상반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람은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대로 본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부정적인 보고를 한 리포터(Reporter)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한다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것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도하는 대로 이 세상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리포트 하는 대로 세상은 그렇게 변화될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그려내는데 따라서 세상은 그렇게 변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디어가 그려내는 대로 세상은 존재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디어가 그

려내는 대로 세상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디어에서 어떤 곳 뉴스(Good-News)가 있습니까. 대부분의 뉴스가 우울한 뉴스입니다. 대부분의 뉴스가 배드 뉴스(Bad-News)입니다. 광우병 파동은 어떻습니까? 진실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유포된 정보가 나라 전체를 뒤 흔들고 만 것입니까? 교통사고로 매일 죽어가는 사람이 30명이 되어도, 언론이 보도 안하면 없는 일처럼 지나갑니다. 그러나 어쩌다 한두 명 죽는 일이라도 보도하기에 따라서는 이슈가 되고, 그 이슈는 사회전체를 뒤 흔들어 버립니다. 한때 온 땅에 조류독감 때문에 난리가 날 것처럼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 막상 조류독감으로 죽은 사람은 자살한 사람 2명뿐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조류 농장 주인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치킨집 주인이었습니다. 언론이 과장되게 이슈화하지만 정작 드러난 것은 이런 것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가 이러한 미디어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실상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미디어 환경에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 무엇을 하기위해 미디어 환경에 들어가는가

우리는 이러한 미디어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하고, 미디어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한 소명이 없다면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의 커리큘럼은 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바꿔야하는 환경임을 분명히 자각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내정되었다고 믿는다면, 그리고 이 미디어에서 정말 굿 뉴스를 흘러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 전체는 달라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압도적인 다수의 목소리에 맞선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각오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열







명 때문에 백성들이 다 돌을 들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를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리포트를 진실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의 패널티(Penalty)입니다. 만약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의 리포트가 이 땅에 만연한다면, 그 사람들은 죽음의 길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진실을 담은 굿 뉴스를, 생명의 굿 뉴스를 전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 땅이 빛이라면, 우리에게 빛이 되라고 하셨을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빛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이 땅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에덴동산이 오염된 이래로 이 땅에는 어둠이 가득합니다. 그 어둠 가운데 우리들이 빛이 되고 생명이 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이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혁명을 하면 달라집니까? 이 땅에 수많은 혁명들이 되풀이 되었었지만, 모든 혁명들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니 전보다 더 타락했습니다. 북한 땅이 천국이 되었습니까? 삼대 세습을 해도 좌파는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어떤 진보적 인사들도 북한의 삼대 세습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디어가 이것을 다루지 않는다면 이슈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디어가 다루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간과하실까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는 소리가 미디어 속에 담아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나의 목소리, 사람의 목소리는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누구를 감동시키지 않습니다. 철학이나 정치학에는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음성은 우리를 감

동케 합니다. 우리들이 먼저 영혼의 메시지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머릿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사람의 말과 언어가 아니라, 가슴속에서 묵히고 묵힌 영혼 속 깊이 담겨진 언어가 쏟아져서 생명의 메시지가 되면, 우리들의 메시지를 접하는 사람들이 감동할 것입니다. 기독교미디어 아카데미 커리큘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고, 그 변화가 감동으로 세상에 굿 뉴스로 전해지기를 바라며, 우리들의 삶과 활동을 통해서 기독교미디어 아카데미가 알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특별히 광고하지 않습니다. 또 광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광고는 시간이 지나면 속았다는 느낌을 주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이 하나씩 하나씩 알려지기 시작하면 비록 더디고 늦은 것 같지만 기독교미디어 아카데미는 확실히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동안 선한 메시지가 흘러가고, 우리들이 활동하고 봉사하게 될 어떤 미디어 영역에서도 진리를 전하는 사도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이 과정 속에서 배웠던 것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변화된 삶의 결단들이, 어둠 속에 빛이 될 것이고 소망을 잃은 세상의 한줄기 소망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미디어가 전한대로 변해왔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절망 속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시고 교육을 받게 하시고 양육하시는 목적은 뚜렷합니다. 우리들이 회복되어 구원받는 인생으로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되는 것입니다.

글. 조정민 CGN-TV 대표이사,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원장